

V 결론

-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는 보험산업에 즉각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, 향후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측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.
 - BCBS와 FSB가 제안한 은행에 대한 자본 강화,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에 따라, 보험산업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 강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.
 - 추가적인 요구자본 발생 규모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.
-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시, 산업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이 요구됨.
 - 첫째,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BaselIII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하여 대비할 필요 존재
 - 둘째,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, 현재 보험산업에 대해 자산과 부채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가 요구됨.
 - 셋째, 보험산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 초래나 확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, 시스템 리스크 유발이 가능한 업무영역의 경우 SIFI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.
 - 또한, 규제차익 방지와 금융위기 시 타 그룹의 영업활동에 기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복합금융감독 방안을 마련